

성도 4명 중 1명, 몸에 부적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오늘날 무속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예능과 다큐멘터리까지 확장되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나 MZ 점술가들의 데이트를 다룬 ‘신들린 연애’처럼 무속 코드는 이제 공포가 아닌 대중적인 콘텐츠로 소비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점술 시장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유튜브상에서도 수천 개의 무속 관련 채널이 범람하며 누구나 손쉽게 무속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무속의 영향이 교회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성도의 20%는 최근 3년 내 실제로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성도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목회자의 82%가 신앙 내 무속적 요소가 존재함을 우려하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기복주의적 신앙(52%)’이 지목된 점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무속화 현상’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33호>를 통해 일상의 문화로 위장한 무속의 영향력을 점검하고, 기복을 넘어선 순수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영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속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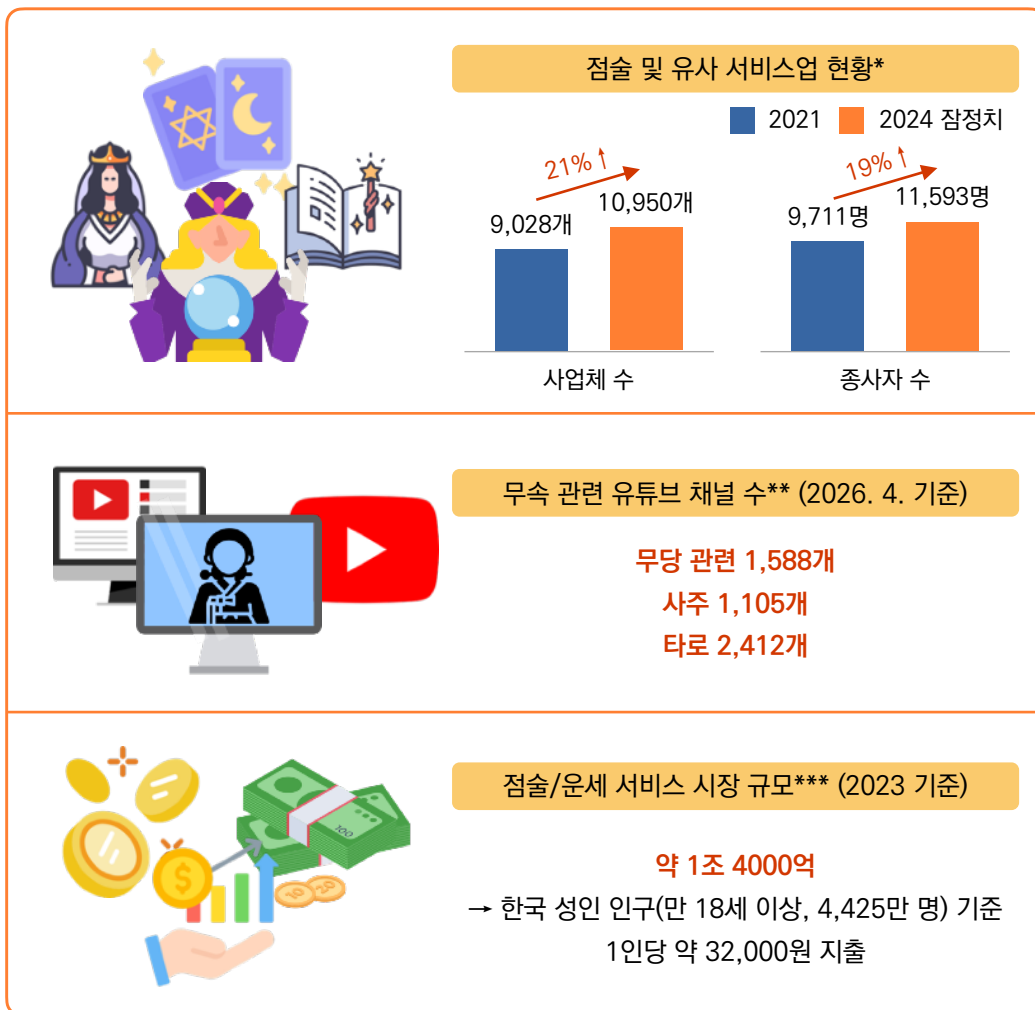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일반국민 조사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출석자)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한 URL발송)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국민 비례할당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23일 ~ 27일 (총 5일간)	2025년 5월 15일 ~ 22일 (총 8일간)	2025년 5월 23일 ~ 28일 (총 6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 약 1조 4000억 원 추산!

- 한국의 무속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먼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4년(잠정) 기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0,950개, 종사자는 11,593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2021년)과 비교해 사업체 수는 21%, 종사자 수는 19% 증가했다.
- 콘텐츠 집계 플랫폼인 플레이보드를 통해 유튜브의 무속 관련 콘텐츠 수(2026년 4월 현재 기준)를 살펴본 결과, '무당' 키워드로 검색되는 채널은 1,588개, '사주' 1,105개, '타로'는 2,412개로 나타났다.
- 한편, 국내 점술 시장 규모(운세 플랫폼 성장 분석 리포트, 혁신의 숲)는 약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며, 이를 단순 환산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4,425만 명) 1인당 약 32,000원을 지출하는 꼴이다.

[그림] 한국의 무속 시장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 2026.04.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F01&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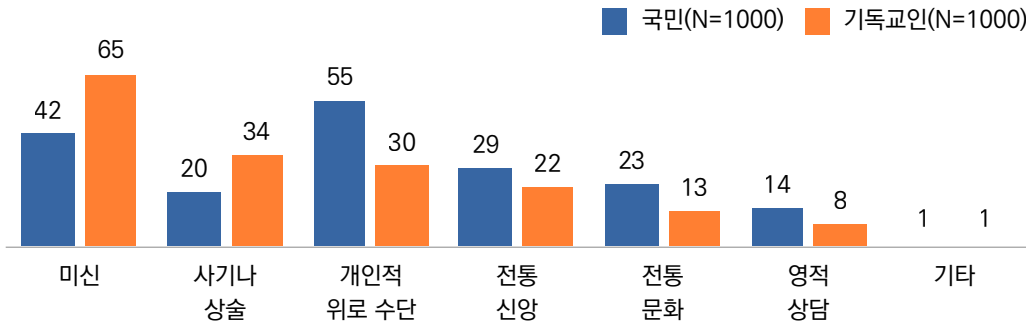
**출처 : 플레이보드 플랫폼 (<https://playboard.co/>) 검색으로 집계

***출처 : 혁신의 숲, 운세 플랫폼 성장 분석, 2024.05. (<https://brunch.co.kr/@markinnoforest/298>)/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년)

국민 절반 이상, '무속은 개인적 위로 수단'...기독교인 30%도 동의!

- 무속의 성격에 대해 성도(65%)는 여전히 '미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반 국민은 '개인적 위로 수단'(55%)을 1위로 꼽았다. 국민 절반 이상은 무속을 마음을 달래는 심리적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 주목할 점은 성도 10명 중 3명(30%) 또한 무속을 '위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무속적 위로가 교회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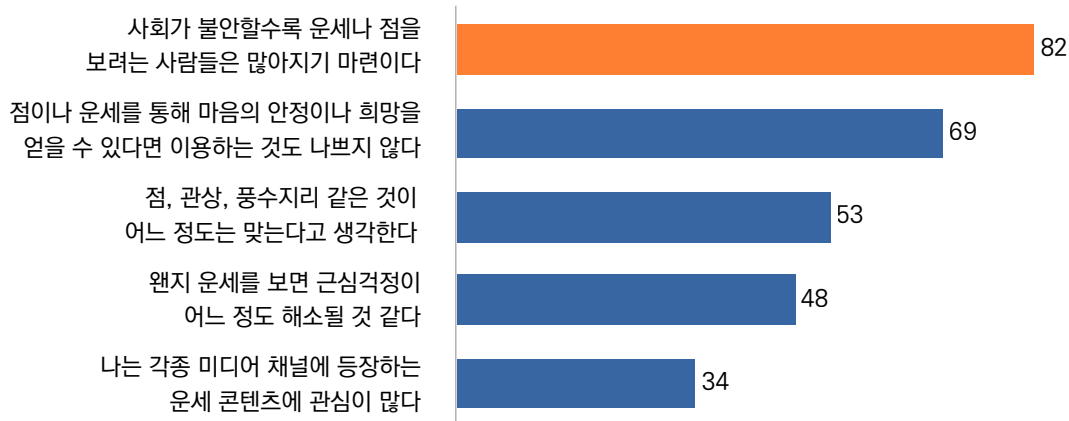
[그림] 무속의 성격 인식 (중복응답, %)



국민 53%, '점·관상 어느 정도 맞다'!

- 무속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동의율), 국민 10명 중 8명(82%)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운세나 점을 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마련이다'에 동의하며 사회 불안과 무속 이용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 국민의 69%는 '점이나 운세를 통해 마음의 안정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도구로서의 무속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점, 관상, 풍수지리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한다'(53%)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며 무속에 대한 믿음을 내비쳤다.

[그림] 무속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매우 동의+약간 동의' 비율*,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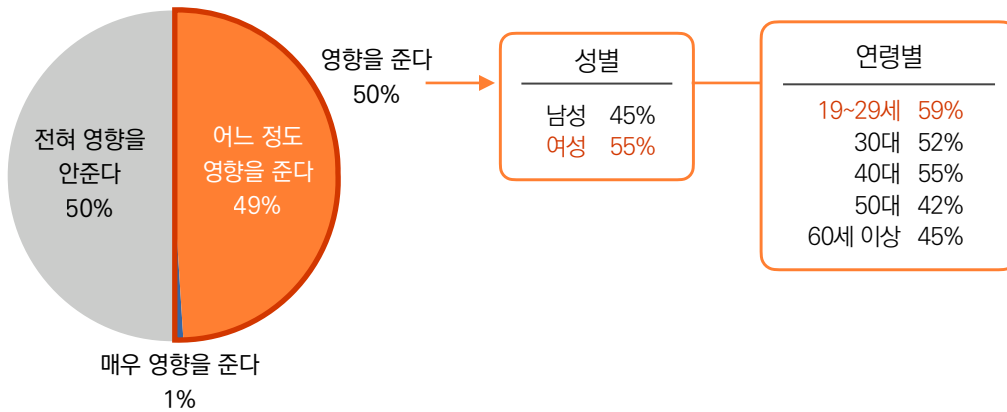


*4점 척도

무속 이용자 2명 중 1명, '무속 결과가 내 의사결정에 영향 미친다'!

- 앞서 무속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실제 무속 행위 후 그 결과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은 결과, 무속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의 절반(50%)은 무속 결과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 특히 '여성'(55%)과 '20대'(59%)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불확실한 현실에서 젊은 층과 여성이 무속적 조언을 실질적인 행동 지침으로 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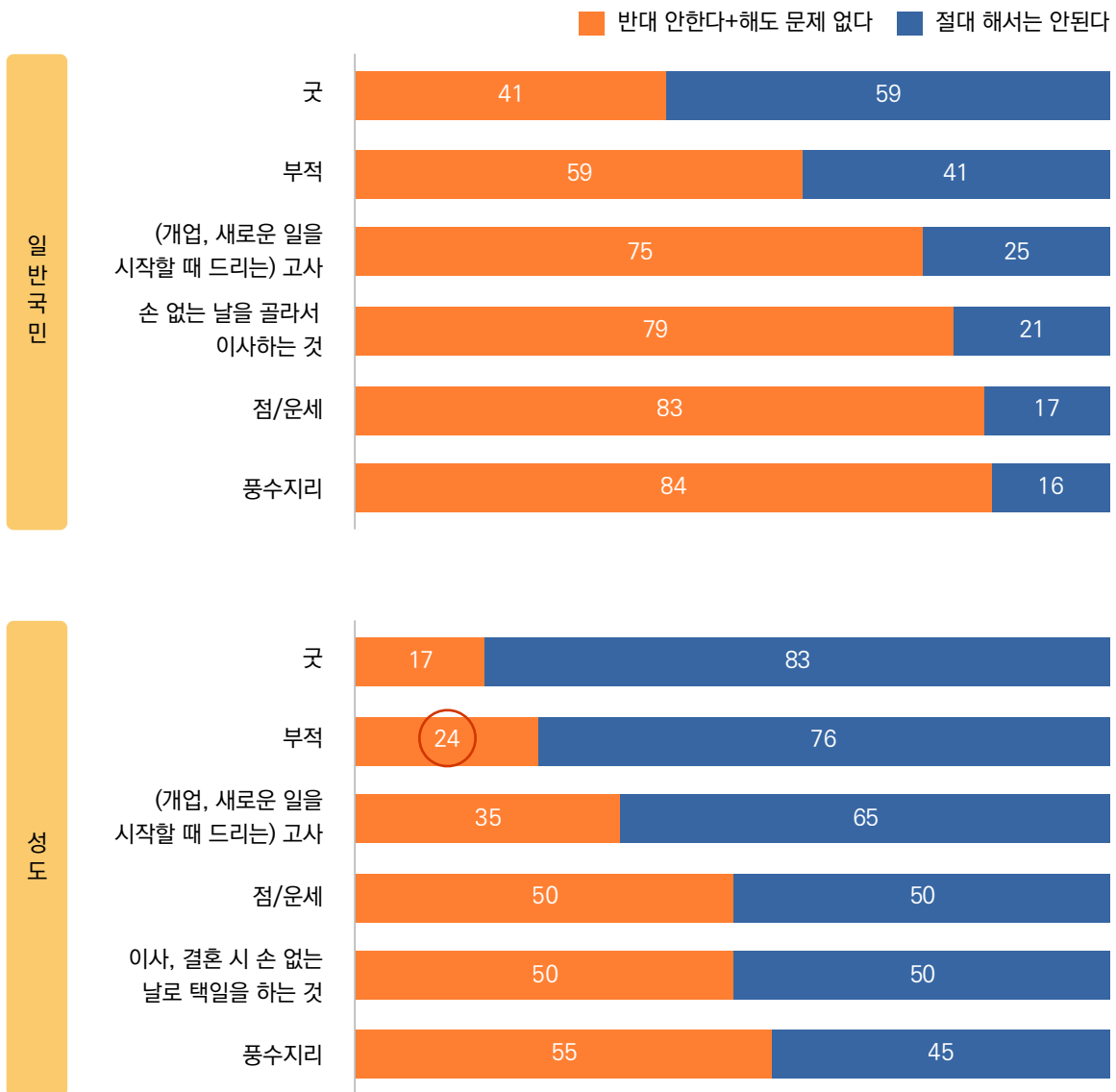
[그림] 무속 결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최근 3년 내 무속을 이용한 일반국민, N=483)



일반국민 무속에 대체로 개방적, 성도 4명 중 1명, 몸에 부적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 무속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매우 개방적인 편이었다. 굿(41%)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속 행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가능하다'(반대 안한다+해도 문제 없다)고 응답했다.
- 주목할 점은 성도들의 태도이다. 국민보다는 보수적이지만, 점/운세(50%), 이사/결혼 택일(50%), 풍수지리(55%)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도 4명 중 1명 꼴(24%)로 몸에 부적을 지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무속적 관습이 성도들의 삶 속에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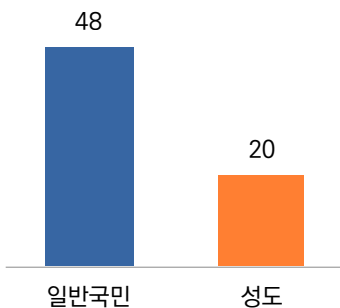
[그림] 무속 행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성도, 각각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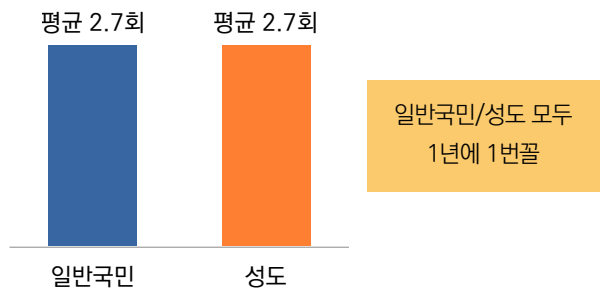
성도 5명 중 1명(20%),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 경험 있다!

-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 경험을 묻은 결과, 일반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8%였고, 성도도 20%로 나타나 성도 5명 중 1명은 무속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속 이용 경험이 있는 성도의 평균 이용 횟수는 평균 2.7회로 일반 국민과 동일했다. 무속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1년에 1번꼴로 점집이나 운세 서비스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최근 3년간 본인의 무속 이용 여부 ('무속 이용함' 비율, 일반국민 N=483, 성도 N=2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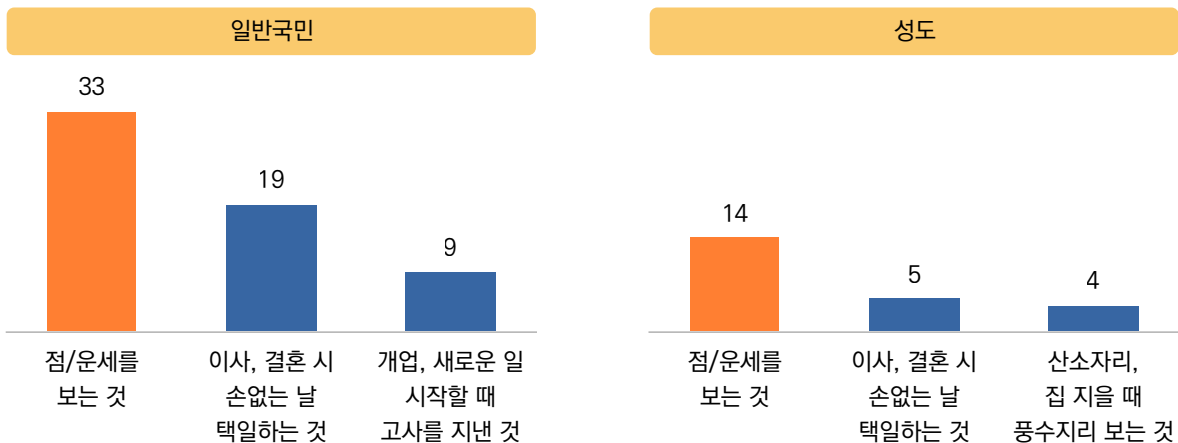
[그림] 최근 3년간 이용한 무속 횟수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한 자, 일반국민 N=483, 성도 N=203 %)



경험한 무속, '점/운세'가 1위!

- 최근 3년간 이용한 무속의 종류는 국민과 성도 모두 '점/운세', '이사/결혼 택일'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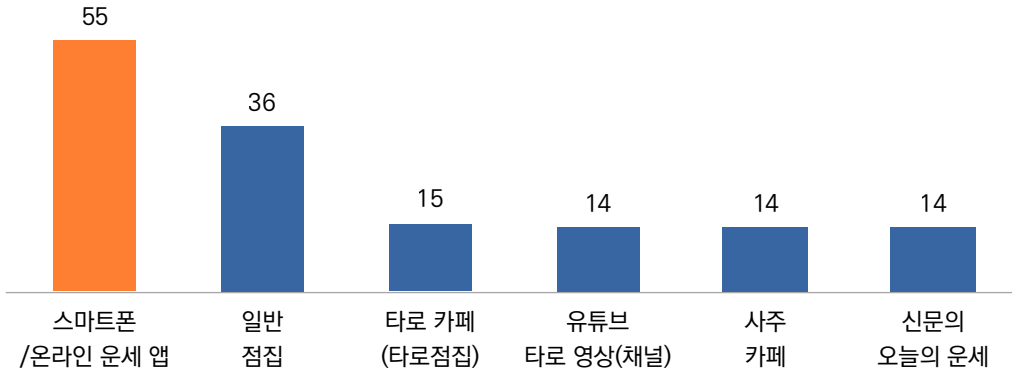
[그림] 최근 3년간 이용한 무속 종류 (전체, 국민과 성도 각각 N=1000, 상위 3개, %)



국민 55%, 점집 대신 '운세 앱' 찾는다!

- 앞서 일반국민이 최근 3년 사이 점/운세를 본 비율은 33%였는데,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를 물은 결과, '스마트폰/온라인 운세 앱'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점집' 36%, '타로 카페' 15%, 유튜브 타로 영상' 14% 등의 순이었다.
- 스마트폰으로 운세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 타로 영상을 보는 등 온라인 생태계의 확장이 점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중적인 콘텐츠 소비처럼 어디서나 손쉽게 무속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무속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그림] 최근 3년간 이용한 운세 방식 (최근 3년 내 점/운세를 본 일반국민, 중복응답, 상위 6개, N=3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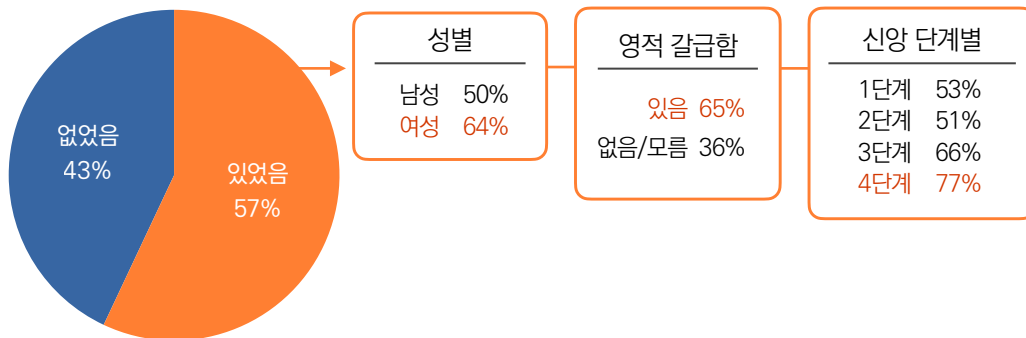
04

[기독교인의 무속에 대한 태도]

무속 경험 성도 43%, 무속 이용 시 '신앙적 갈등 없었다!'

- 최근 3년 내 무속을 경험한 성도 대상으로, 과거 무속 이용 시 신앙적 갈등 여부를 물은 결과, 무속 이용 성도 2명 중 1명(43%) 가까이가 신앙적으로 크게 갈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 한편 '무속 이용 시 신앙적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성도일수록,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경우,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무속 이용 시 신앙적 갈등 여부*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한 성도, N=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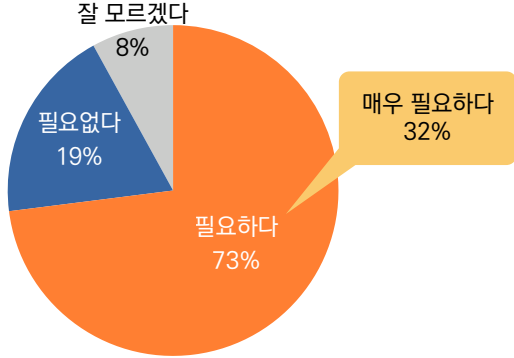


*4점 척도

성도 4명 중 3명(73%), '무속 관련 설교/교육 필요!'

- 무속 관련 설교/교육 의견을 묻은 결과, 성도의 73%가 무속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중 32%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교육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그림] 무속과 관련된 설교/교육에 대한 의견* (성도,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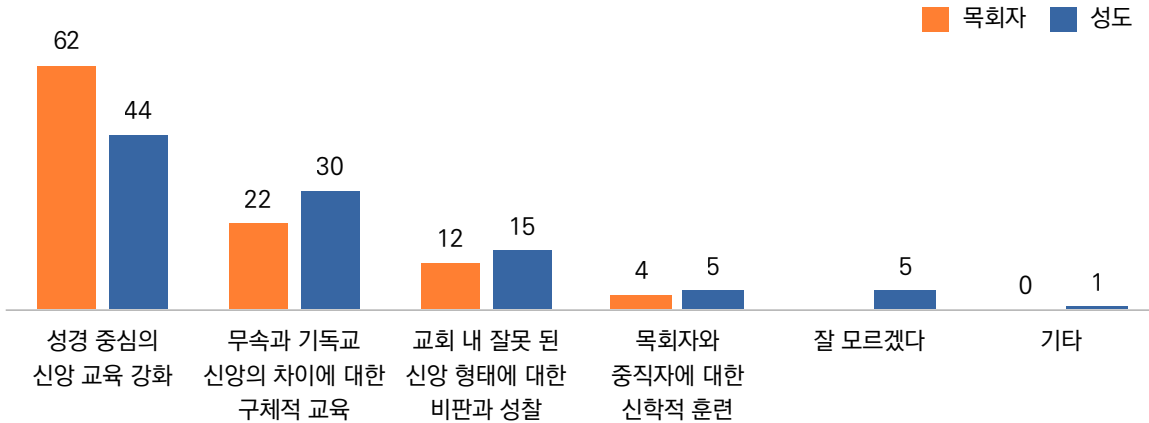


*4점 척도

무속 영향에 맞서려면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 강화 필요!

- 기독교 신앙이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목회자(62%)와 성도(44%) 모두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 강화'를 1위로 꼽아 말씀이 핵심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차순위로 응답된 '무속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짚어주는 구체적인 교육'(성도 30%, 목회자 22%)이 병행될 때, 성도들은 일상 속에 스며든 무속 요소를 능동적으로 분별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기독교 신앙이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목회자 N=500, 성도 N=1000, %)



목회자 대부분(82%), 기독교 신앙 내 무속적 요소 있다!

- 한국 교회 목회자 대부분은 이미 우리 신앙이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독교 신앙 내 무속적 요소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목회자 82%가 '그렇다'고 답하며 신앙의 순수성 훼손을 우려했다.
- 반면 성도는 48%가 '아니오'라고 답해 목회자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무속적 요소인지 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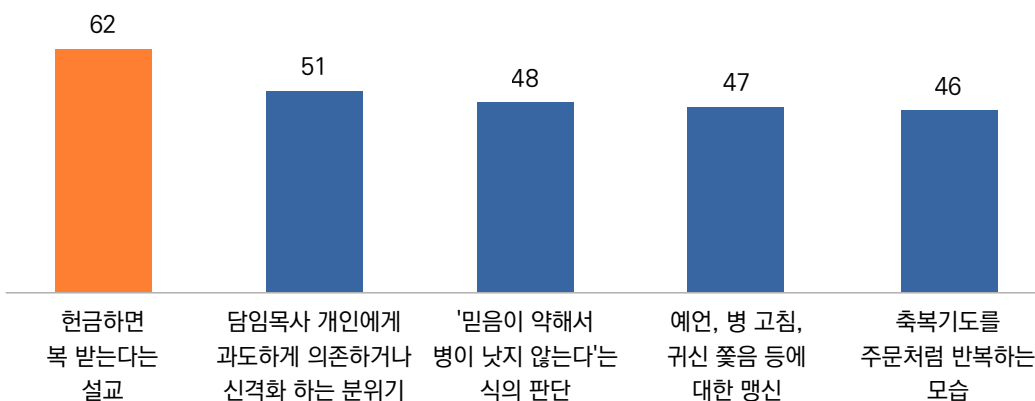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신앙 내 무속 요소 존재 여부 (목회자 N=500, 성도 N=1000, %)



기독교 신앙 내 무속적 요소 1위, '헌금하면 복받는다는 설교'(62%)!

-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가장 심각한 무속적 요소는 무엇일까? 목회자의 62%가 '헌금하면 복받는다는 설교'를 가장 대표적인 무속적 요소로 꼽았고, 이어 '담임목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신격화하는 분위기'(51%),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48%), '예언, 병 고침, 귀신 쫓음 등에 대한 맹신'(47%) 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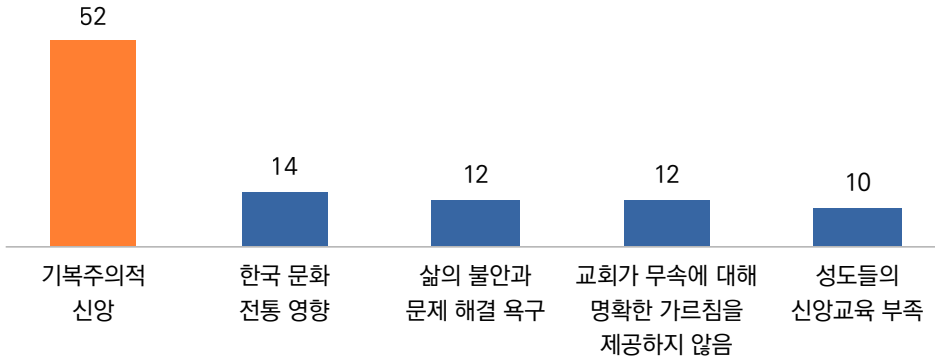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신앙 내 들어온 무속 요소 (기독교 신앙에 무속 요소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복수응답, 상위 5개, N=408, %)



목회자 절반 이상(52%), ‘기복주의적 신앙’이 무속의 통로!

- 기독교 신앙에 무속이 들어온 원인에 대해 목회자의 52%가 ‘기복주의 신앙’(52%)을 1순위로 지목했다. 다음으로 ‘한국 문화 전통의 영향’(14%) 등이 뒤를 이었다.
- 현세적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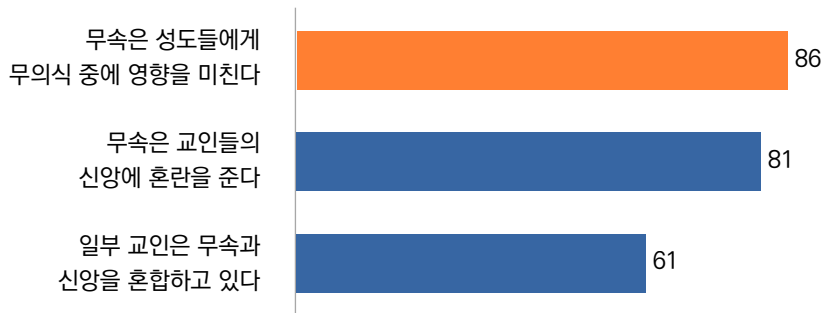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신앙에 무속이 들어온 원인 (목회자, N=500, %)



목회자 대부분, “무속이 성도 신앙에 영향 준다” 우려!

- 무속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목회자들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무속이 ‘무의식중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86%), ‘교인들의 신앙에 혼란을 준다’(81%)는 데 압도적으로 동의하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림] 무속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회자, ‘매우+다소 동의’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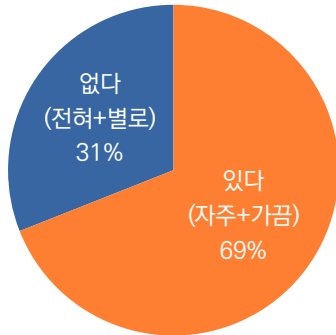


*4점 척도

목회자 10명 중 7명(69%), 성도 삶에서 무속적 사고 느껴!

- 앞서 무속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일부 교인은 무속과 신앙을 혼합하고 있다'에 61%의 목회자가 동의했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무속적 사고방식을 경험한 목회자는 69%로 나타났다.

[그림] 성도들의 삶에서 무속적 사고방식을 느낀 경험* (목회자, N=500)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성도 5명 중 1명,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 경험 있다!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 경험을 묻은 결과, 일반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8%였고, 성도도 20%로 나타나 성도 5명 중 1명은 무속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성도 4명 중 1명, 몸에 부적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무속 행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국민보다는 보수적이지만, 성도 절반(50%)은 '점/운세'나 '이사/결혼 택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성도 4명 중 1명(24%)은 몸에 부적을 지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성도 4명 중 3명(73%), '무속 관련 설교/교육 필요'!

무속 관련 설교/교육 의견에 대해서는 성도의 73%가 무속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중 32%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교육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무속에서 기독교로 (민속원, 최길성 저)

관련 성경 구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 18:10~11)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일상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문턱을 넘은 무속 신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성도 5명 중 1명은 최근 3년 내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앙적 갈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성도 4명 중 1명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목회자의 82%는 기독교 신앙 내 무속적 요소를 우려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 '기복주의적 신앙'을 꼽는다. 헌금이나 축복 기도를 복을 받는 수단이나 주문처럼 여기는 태도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영적 혼란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 73%가 무속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바른 신앙에 대한 잠재적 갈급함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과 태도를 취해야 할까? 교회는 단순히 무속을 금기시하는 차원을 넘어,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앙적 태도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는 '유보적'인 성도들이 불안감 때문에 무속적 위로를 찾지 않도록 구체적인 분별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기복주의적 설교를 경계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 훈련을 체계화해야 한다. 무속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 미디어가 전파하는 운세 콘텐츠 등을 거부하는 영적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등을 통해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내면의 불안감을 떨쳐내야 비로소 무속의 유혹을 이기고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